

보완대체요법의 국내외 연구 동향 비교*

오가실¹⁾ · 김금순²⁾ · 권소희³⁾ · 박지원⁴⁾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보완대체요법(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CAM)은 최근 들어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의학, 간호학 등 건강관리 학문분야에서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연구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4년 현재 80개의 의과대학에서 대체의학을 교과목으로 택하고 있으며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 극적인 증가를 보임에 따라 1992년에 국립보건원 산하에 대체 의학국을 설립하였고 1999년엔 현재의 국립 보완대체요법센터(National Center of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이하 NCCAM)로 격상하여 보완대체요법의 안전성과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Chun(2004)은 “동양의학, 서양의학, 대체의학 모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동시에 각각의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론적 바탕과 시술의 접근법에서 서로 보완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계속 제시되고 있으므로 어떠한 형태의 의학이든지 과학과 기술을 도구로 삼아 연구하고 개발할 때 진정한 세계의학의 일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비록 미국의 NCCAM에서 다양한 보완대체요법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보완대체요법에서의 과학적 근거가 의미 있게 증가하고는 있으나, 보완대체시스템과

정통의료시스템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근거 기반이 확립되어야 하며 이들 효과를 주장하는 많은 연구가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Raschetti, Menniti-Ippolito, Forcella와 Bianchi(2005)는 보완대체요법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1997년에서 2002년까지 발표된 CAM관련 논문을 분석한 결과 논문이 다른 학문영역이 의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간호학을 비롯하여 보건의료계통 뿐만 아니고 체육학이나 미용학 등에서도 많은 연구를 진행하며 각자의 관심 분야를 구축해 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 발표에도 불구하고 연구 방법의 체계성 부족으로 인해 연구결과가 과학적 증거자료로서 인정받기에는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술한 Rachettie 등(2005)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209편의 연구 중 7.6%만이 순수실험설계 연구였으며 50%의 논문은 영향력(impact factor)이 없는 학술지에 게재된 것이었다. 최근 국내 간호계에서도 보완대체요법이나 한방간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이 계통의 논문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Lee et al., 2002; Seol, Choi, & Lee, 2002; Son, 2002; Kim, 2003). Yang과 Shin(2003)이 1980년에서 2001년 사이 발표된 국내 보완대체요법 논문 203편 중 간호학 논문 88편을 분석한 결과 실험연구가 48편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주제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치료효과를 실증하기 위한 연구가 74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현상은 간호계의 많은 연구자나 학자들이 보완대체요법 중에서 간호중재방법으로 적용 또는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보여

주요어 : 보완대체요법, 연구동향, 연구방법

* 본 연구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2005년 최근 과학기술 수준평가 및 학술동향 조사분석 사업으로 지원받았음.

1)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3)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학생, 4)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투고일: 2006년 4월 12일 심사완료일: 2006년 6월 7일

진다. 이와 같이 국내 간호학계의 논문이 중재개발을 위한 실험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는 하나 유사실험설계나 원시실험설계가 대부분이어서 그 결과를 보완대체요법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결과라고 제시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많은 간호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보완대체요법을 간호중재로 적용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과학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학 협회지에서도 ‘대체의학은 과학적 검증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모든 치료법의 효능,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과학적 방법을 통해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Eisenberg, Davis, & Ettner, 1998). 한편 간호, 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보완대체요법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학문의 분류와 정체성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완요법에 대한 실험연구가 활발한 간호 분야에서 보완대체요법을 통합의료서비스로 정착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우선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국내의 연구논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보완대체요법의 학문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국내외 연구동향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완대체요법의 학문의 정체성과 영역을 한정지을 수 있는 방향설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 국내외 보완대체요법의 전반적 연구동향을 비교한다.
- 국내외 보완대체요법의 실험연구 동향을 비교한다.

용어정의

● 보완대체요법(CAM)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대한의학회 보완대체의학실무위원회(2005)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정통의학, 주류의학, 제도권 의학, 정규의학에 속하지 않은 모든 보건의료체제 및 이와 동반된 이론이나 신념, 그리고 진료나 치료에 이용되는 행위와 제품 등의 치유자원 전체를 통칭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 미국의 NCCAM에서는 ‘현재 주류의학의 일부가 아니라 여기는 다양한 의료 및 건강관리 체계, 기술 및 제품으로 CAM을 정의하면서 2002년 보완대체요법의 유형을 1) 약초와 비타민류 등을 포함하는 생물학적 요법(biologically based practices), 2) 자기장요법이나 경락, 침술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 요법(energy medicine), 3) 맞사자나 향기요법 등을 포함하는 수기요법(manipulative & body-based practices), 4) 명상과 이완요법 등을 포함하는 심신요법(mind-body medicine), 5) 동양의학이나 아유르베다 등의 대체의학 체계(whole

medical systems)의 다섯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제도권 의학인 서양 의학과 한의학 영역의 치료나 요법을 제외한 모두를 보완대체요법으로 정의하고, NCCAM에서 분류한 다섯 영역의 보완대체요법 유형을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논문검색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NCCAM은 서양의학 이외의 모든 영역 즉 한의학이나 중의학도 대체의학체계로 분류하고 보완대체요법으로 규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은 제외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자료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한의학을 제외한 국내외 보건의료계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보완대체요법을 주제로 한 초록을 우선 대상으로 검색하였다. 검색된 논문 중 실험연구와 서술적 조사연구 논문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질적 연구, 종설, 사례발표, 초록의 내용이 빈약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논문은 제외되었다.

초록분석에 사용된 논문은 총 588편으로 국내논문 242편, 국외논문 346편이었다. 국내논문 242편은 실험연구가 202편, 서술연구가 40편이고, 국외논문은 실험연구 99편, 서술연구 247편이었다. 실험연구 논문도 원문분석에 사용된 논문은 총 223편이었으며 이중에 국내논문이 161편, 국외논문이 62편으로 구성되었다.

분석도구

논문의 내용을 일관된 틀을 적용하여 분석하기 위해 4명의 연구자들이 8차례의 회의와 사전검증 과정을 거쳐 1) 초록 요약지 양식과 2) 원문 세부기록지 양식을 개발하였다.

● 초록 요약지 양식

초록 요약지는 논문유형에 따라 조사연구용과 실험연구용으로 구별하여 개발하였다. 조사연구용 요약지는 책임연구자의 학문분야, 대상자 특성, 조사된 보완대체요법의 유형과 연구주제를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실험연구용 요약지에는 책임연구자의 학문분야, 연구설계, 대상자 특성, 실험한 보완대체요법의 유형을 포함하였다.

● 원문 세부기록지 양식

원문 세부기록지는 실험연구의 원문을 심층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의 질, 표본의 대표성, 중재의 타당성, 연구성과의 네 개 하부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질은 Jadud 등(1996)이

메타분석시 편견의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특별히 순수실험문헌의 질을 평가하고자 제시한 연구의 질 평가문항을 사용하였다. Jadud 등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임상가, 전문가를 평정자로 참여시켜 실험문헌의 과학적 질을 일관성있고 신뢰성있게 평가하는 문항으로 무작위화 적용 설계, 무작위화 방법 서술 및 방법의 적절성, 이중차단(double blinding)의 적용, 그리고 대상자의 탈락에 대한 서술을 평가하여 각 문항에 대해 충족하면 1점, 불충족하면 0점을 배정하여 최대 5점으로 점수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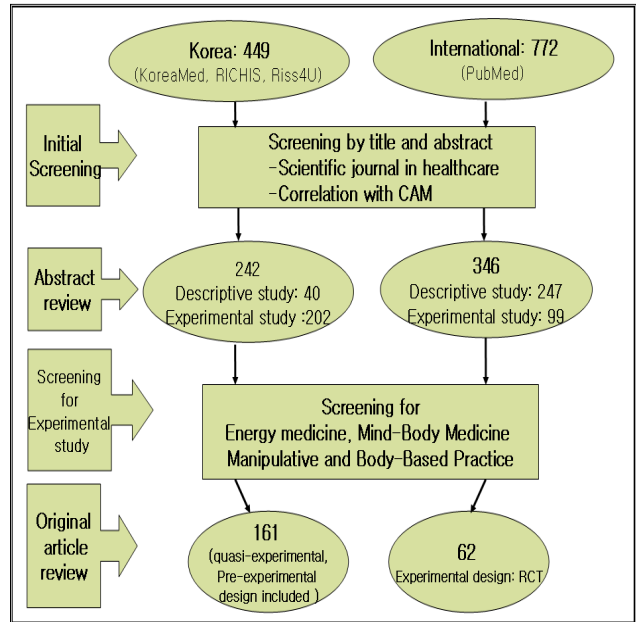
표본의 대표성에는 대상자의 적격성 범주와 선정기준, 탈락율, 표본 크기와 검정력, 그리고 대상자의 인구학적, 진단학적 동질성을 분석하였다. 중재 방법의 타당성은 중재제공 환경, 중재 프로토콜, 중재절차(중재빈도, 중재기간, 중재강도), 추후조사, 중재의 금기준, 중재자 자격과 동질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성과에서는 결과변수의 특성으로 결과변수의 내용과 사용빈도 및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중재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자료분석방법

● 문헌검색

국내 논문은 국내 보건의료 관련 검색엔진 중 가장 광범위한 논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KoreaMed, Riss4U, RICHis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그러나 학술지 논문을 보완대체요법,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CAM으로 검색했을 때 20편 이하의 논문만이 검색되어 NCCAM에서 분류한 보완대체요법에 포함되는 76개 요법의 이름을 각각 영어와 한글로 입력하였을 때 449편이 검색되었다. 그 중 보건의료분야 이외의 학술지와 한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제외하고, 중복 검색된 논문을 제외한 242편의 초록이 1차 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초록 분석자료 중 NCCAM 분류기준으로 에너지 요법, 수기요법, 심신요법을 중재로 적용한 실험연구 161편의 원문을 수집해 원문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국외 논문은 MEDLINE을 비롯한 다양한 과학학술지에 게재된 1500만이 넘는 논문을 포함하고 있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서비스하는 검색 엔진인 PubMed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 조건으로 언어는 ‘영어’로, 대상은 ‘인간’으로, 하부분류는 ‘complementary medicine’으로 제한한 후 “CAM”을 검색용어로 입력하였을 때 772편이 검색되었다. 이 중 연구자료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346편의 초록이 1차 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초록 분석자료 중 에너지 요법, 수기요법, 심신요법을 중재로 적용한 실험연구 62편의 원문을 수집해 원문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문헌검색을 통한 분석논문의 선정과정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 Literature screening process

● 자료분석

연구자들이 개발한 초록 요약지와 원문 세부기록지를 가지고 두 명의 검토자가 선정된 논문의 초록과 원문을 분석한 후, SPSS 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보완대체요법 전문가와의 두 차례의 자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해석하고 논의하는데 객관성을 가지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보완대체요법 연구의 국내외 동향

국내논문 242편과 국외논문 346편의 초록을 분석하여 논문 유형, 책임연구자의 학문분야, 대상자의 특성, 주요 CAM 유형과 연구주제를 비교함으로써 국내외 보완대체요법 연구의 전반적 경향을 조사하였다. 연구설계로는 국내연구에서 실험연구가 83.0%(202편)로 과반수이상이었고, 국외에서는 조사연구(71.4%)가 주류를 이루었다<Table 1>.

보완대체연구의 주도적 학문 분야를 알아보기 위하여 책임연구자를 조사하였다. 국내 실험연구의 책임연구자는 56.4%가 간호학 분야였으며 의학분야는 39.7%였고, 조사연구의 책임자는 국내외에서 모두 간호학보다 의학이 더 많아 각각 58.1%, 44.5%였다. 전체적으로 국외 논문에서는 의학분야 연구자가 42.9%로 많았고 그 다음은 보완대체요법 분야에서 25.0%, 그리고 간호학 분야는 13.7%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해외에서의 보완대체요법 분야라 함은 동종요법, 자연요법, 카이로프랙틱,

<Table 1> Research design in the area of CAM research (2000-2005)

	Korea		International		Total
	N of abstracts (original article)	%	N of abstracts (original article)	%	
Experimental	202 (161)	83.0	99 (62)	28.6	301
Descriptive	40	17.0	247	71.4	287
Total	242	100.0	346	100.0	588

<Table 2> Major field of Researchers,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AM modalities, and main theme of study

Characteristics	Value	Korea						Internationals					
		Descriptive		Experimental		Total		Descriptive		Experimental		Total	
		n	%	n	%	n	%	n	%	n	%	n	%
Major field	Nursing	13	41.9	71	56.4	84	53.5	14	11.0	13	19.1	27	13.7
	Medicine	18	58.1	49	38.9	67	42.7	57	44.5	27	39.7	84	42.9
	Major related to CAM	0	0	0	0	0	0	26	20.3	23	33.8	49	25.0
	Others(Pharmacology etc.)	0	0	6	4.7	6	3.8	31	24.2	5	7.4	36	18.4
	Total	31	100	126	100	157	100	128	100	68	100	196	100
Subjects	Patient	23	57.5	154	76.2	177	73.1	146	59.1	83	83.8	229	66.2
	Healthy person	15	37.5	44	21.8	59	24.4	86	34.8	16	16.2	102	29.5
	Others	2	5.0	4	2.0	6	2.5	15	6.1	0	0	15	4.3
	Total	40	100	202	100	242	100	247	100	99	100	346	100
CAM modalities	Biologically Based Practices	14	30.4	1	0.5	15	6.1	151	47.5	18	18.2	169	40.0
	Energy Medicine	8	17.4	35	17.3	43	17.3	35	11.0	33	33.3	68	16.3
	Manipulative and Body-Based Practice	9	19.6	58	28.7	67	27.0	62	19.5	19	19.2	81	19.4
	Mind-Body Medicine	7	15.2	108	53.5	115	46.4	59	18.5	23	23.2	82	19.7
	Whole Medical System	8	17.4	0	0	8	3.2	11	3.5	6	6.1	17	4.6
	Total	46	100	202	100	248	100	318	100	99	100	417	100
	Theme of study	CAM utilization	17	42.5					178	72.1			
Perception and satisfaction	10	25.0					44	17.8					
Management	0	0					15	6.1					
Clinical application	6	15.0					1	4					
Others	7	17.5					9	3.6					
Total	40	100					247	100					

맞사지등을 포함한다<Table 2>.

연구 대상자는 조사연구는 환자가 국내 57.5%, 국외 59.1%였으며 국내외 모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국내 37.5%, 국외 34.8% 이었다. 그러나 실험연구에서는 대부분이 환자로서 국내연구의 76.2%, 국외연구에서는 83.8% 이었다 <Table 2>.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룬 CAM 유형은 조사연구에서는 생물학적 요법이 국내외에서 각각 30.4%와 4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국내는 수기요법(19.6%), 에너지요법(17.4%), 대체의료 체계(17.4%)순이었다. 국외에서는 수기요법(19.5%), 심신요법(18.5%)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실험연구에서는 국내는 심신요법(53.5%)이 가장 많은데 비하여 국외에서는 에너지 요법(33.3%)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심신요법(23.2%)이었다<Table 2>.

조사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모두 사용실태(국내; 42.5%, 국외; 72.1%)에 대한 조사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은 만족도 및

인식도 (국내: 25.0%, 국외: 17.8%) 순이었다<Table 2>.

실험연구 동향

국내 실험연구 161편, 국외 실험연구 62편으로 총 223편 연구의 원문을 검토하여 연구의 질, 표본의 대표성, 중재의 타당성, 결과변수 등 실험연구의 연구방법론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외 보완대체요법 관련 실험연구의 수준을 비교하였다.

● 연구의 질(quality)

Jadud 등(1996)은 실험연구에 대해 설계, 무작위, 이중차단, 무작위 적절성, 탈락을 등을 검토하여 각각의 항목에 점수를 주어 논문의 과학적 질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분석대상 논문의 질이 추후 메타분석을 할 수 있는 과학적 수준인지를 평가할 목적으로 Jadud 등이 개발한 평가문항을 적용하여 실험연구의 질을 분석하였다.

<Table 3> Quality of experimental research

Characteristics	Value	Korea(n=161)		International(n=62)	
		n	%	N	%
Design	RCT	14	8.7	62	100
	Quasi-experimental	98	60.9	0	0
	Pre-experimental	49	30.4	0	0
	Total	161	100.0	62	100.0
Randomization	Described	22	13.7	59	95.2
	Not-described	139	86.3	3	4.8
	Total	161	100.0	62	100.0
Blinding	Double blind	7	31.8	20	33.9
	Single blind	4	18.2	20	33.9
	Not-described	11	50.0	19	32.2
	Total	22	100.0	59	100.0
Properness of randomization	Appropriate	9	40.9	29	49.2
	Inappropriate	9	40.9	1	1.6
	Not-described	4	18.2	29	49.2
	Total	22	100.0	59	100.0
Drop off rate	Reported	107	66.1	58	93.6
	Not-reported	54	33.9	4	6.4
	Total	161	100.0	62	100.0

*Analyzed only if applicable

첫째, 논문의 연구 설계를 조사했을 때 국외는 검색과정에서 순수실험설계 논문으로 제한하여 검색한 결과로 62편 모두 순수실험설계 논문이었으나 국내에서는 실험연구 161편 중 14편(8.7%)만 순수실험설계 논문이었고, 나머지는 대조군이 있는 설계(60.9%)와 단일군 설계(30.4%)를 포함한 유사실험설계나 원시실험설계 논문이었다. 둘째, 무작위화 과정을 서술한 논문은 국내의 경우 13.7%에 불과하였고, 국외논문은 95.2%였다. 셋째, 이중차단을 적용한 논문은 국내연구의 31.8%였으며 국외에는 33.9%이었다. 단일차단을 적용한 논문은 국내에서는 18.2%, 국외에서는 33.9%이었다. 넷째, 대상자의 무작위화 방법의 적절성을 살펴보면 배정의 은폐가 적절하다고 언급한 논문은 국내논문은 40.9%이었고 국외논문은 49.2%이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 탈락에 대한 보고는 국내논문의 경우 161편 중 107편에서(66.1%), 국외논문의 경우 62편 중 58편(93.6%)에서 서술되어 있었다<Table 3>.

Jadud 등(1996)이 평가문항에 배정한 점수를 국내외 논문에 적용했을 때 국내 논문은 최하 0점, 최고 4점으로 평균 1.0점이었고, 국외논문은 최하 1점, 최고 5점으로 평균 3.44점으로 나타나 국내 실험연구의 수는 국외 연구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으나 질적으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표본의 대표성

표본의 대표성을 분석하기 위해 대상자 적격성 범주와 선정기준, 표본의 크기 검증, 탈락율, 대상자의 사전 동질성 검증, 대상자 수를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적격성 범주가 서술된 논문은 국내의 경우 94.4%,

국외의 경우 80.7%이었고, 대상자의 선정기준(포함/제외기준)은 국내연구의 77.6%, 국외의 83.9%가 기술하고 있었다. 표본의 크기를 검정력 분석을 이용해 검증한 논문은 국내의 9.9%, 국외에서는 24.2%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탈락율은 국내논문은 3.13%인데 비하여 국외논문은 0.13%로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대조군이 있는 논문에 대해 CAM적용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학적 동질성은 국내논문의 80.4%에서, 국외논문의 78.4%에서 검증하였으며, 의학진단의 동질성은 국내논문의 91.6%에서, 국외논문의 82.4%에서 검증한 것으로 비교적 철저히 절차를 밟았다고 보여진다<Table 4>.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수는 실험군의 등록자수와 완수자수를 비교하였다. 국내논문의 경우 평균 등록자수는 28.3명, 평균 완수자수는 26.7명이었다. 국외논문에서는 평균 등록자수가 57.1명이었으며 평균 완수자수는 47.5명으로 국내 대상자에 비해 대상자 수도 많았으나 탈락자도 많았다. 대조군의 등록자수와 완수자수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국내논문의 경우 평균 등록자수는 24.7명, 평균 완수자수는 22.6명이었고, 국외논문의 경우 평균 등록자수는 68.4명, 평균 완수자수는 42.9명으로 국외논문의 대상자수가 국내논문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재방법의 타당성

중재방법의 타당성은 중재환경, 중재프로토콜, 중재의 빈도와 기간, 강도를 포함하는 중재절차, 추후조사, 중재의 금기증명시, 중재자 자격과 동질성으로 조사하였다.

국내논문의 89.4%와 국외논문의 93.6%에서 중재가 제공된

<Table 4> Descriptions of research sample and validity of CAM intervention

Characteristics	Value	Korea(n=161)		International(n=62)		
		n	%	n	%	
Research sample	Eligibility criteria	Described	152	94.4	50	80.7
		Not-described	9	5.6	12	19.3
		Total	161	100.0	62	100.0
	Inclusion/exclusion	Described	125	77.6	52	83.9
		Not-described	36	22.4	10	16.1
		Total	161	100.0	62	100.0
	Power	Described	16	9.9	15	24.2
		Not-described	145	90.1	47	75.8
		Total	161	100.0	62	100.0
	Drop off rate		3.13%		0.13%	
	Homogeneity tes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Yes	86	80.4	40	78.4
		No	21	19.6	11	21.6
		Total	107	100.0	51	100.0
	Homogeneity test (diagnostic)	Yes	87	91.6	42	82.4
		No	8	8.4	9	17.6
		Total	95	100.0	51	100.0
	Reliability of the instruments	Described	84	52.2	8	12.9
		Not-described	77	47.8	54	87.1
Validity of the instruments	Described	14	8.7	16	25.8	
	Not-described	147	91.3	46	74.2	
Results of comparison between groups	Described	113	70.2	57	91.9	
	Not-described	48	29.8	5	8.1	
	Total	161	100.0	62	100	
Intervention	Investigation setting	Hospital	74	46.0	40	64.5
		Community	40	24.8	4	6.5
		CAM practice	1	.6	7	11.3
		School	20	12.4	1	1.6
		Others(Clinic, home etc)	9	5.6	6	9.7
		Not-described	17	10.6	4	6.5
	Intervention contents	Setting	144	89.4	58	93.6
		Protocol	141	87.6	59	95.2
		Duration	161	100.0	55	88.7
		Frequency	154	95.7	54	87.1
Intervention contents	Intensity	148	91.9	39	62.9	
	Follow up	28	17.4	16	25.8	
	Contraindication	3	1.9	4	6.5	
	Prep of therapists	47	29.2	26	41.9	
Homogeneity of CAM therapists		52	32.5	19	30.6	

*Analyzed only if applicable

환경을 명시하였으며, 주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국내는 병원(46.0%), 지역사회(24.8%), 학교(12.4%) 순이었으며, 국외는 보완대체 전문가가 많아서 병원(64.5%) 다음으로 CAM 중재자의 개인 사무실이나 CAM 현장(11.3%)에서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Table 4>.

중재 프로토콜은 거의 다 명시되어 있어서 국내는 87.6%, 국외는 95.2%였다. 중재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를 조사했을 때, 중재 기간은 국내는 전부 다 제시하였고, 국외는 88.7%이었고, 중재 빈도는 국내에서 95.7%, 국외에서는 87.1%에서, 중재 강도는 국내는 91.9%, 국외는 62.9%에서 명

시되어 있었다<Table 4>.

사후조사 후 추후조사를 실시한 논문은 국내는 17.4%에 불과했으나, 국외는 조금 더 많아서 25.8%이었으며, 중재기법의 금기증에 대해서는 국내는 1.9%, 국외는 6.5%에서만 명시되어 있었다. 보완대체요법을 제공하는 중재자의 자격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는 국내는 29.2%의 논문에서 언급되어 있었고 이 중 90.6%에서 적절하다고 하였다. 국외의 경우에는 41.9%에서 중재자 자격의 적절성을 언급하였고 이 중 92.3%에서 적절하다고 하였다. 중재자간의 동질성에 대해선 국내는 32.5%에서, 국외는 30.6%의 논문에서 동질한 것으로 보고되

었다<Table 4>.

● CAM의 효과 분석

CAM의 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결과변수를 중심으로 변수의 종류와 효과 보고율,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그리고 중재결과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과변수는 불안이나 우울을 포함하는 심리적 기능, 자기효능감이나 신념과 같은 인지적 기능, 배회행동정도와 같은 행동적 기능, 피부병소의 크기감소나 요실금의 횟수와 같은 건강상태의 변화, 혈압이나 임상혈액검사와 같은 생리적 변화, 일상생활수행정도와 같은 신체적 기능, 삶의 질, 그리고 두통, 요통, 관절통, 암성 통증의 경감과 같은 통증 조절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국내 논문에서 주로 사용한 결과변수는 건강 또는 질병상태변화와 심리적 기능, 인지적 기능, 신체적 기능, 생리적 변화가 30%선에서 유사하게 분포하고 있었고 자료 수집은 주로 대상자의 자가 보고로 평가되었으며 질병상태변화나 행동적 생리적 변화는 주로 의료인에 의해 측정되었다. 국외 논문에서는 생리적 변화(49.5%)가 가장 많았고, 신체적 기능이 39.4%였으며, 질병상태변화, 통증의 변화를 결과변수로 확인하고 있어서 심리, 인지기능이 우선되는 국내 현상과 대조를 이루었다.

CAM 중재적용 후 효과 보고율은 국내에서는 81.3%(통증)에서 100%(삶의 질)까지, 국외는 53.9%(신체적 기능)에서 90.0%(행동적 기능)까지 나타났으며 이중 행동적 기능은 국내, 국외 논문 모두 90.0% 이상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통증은 국내가 81.3%로, 국외는 77.4%로 나타났다<Table 5>.

논문에서 주요하게 사용한 결과변수의 측정도구에 대해 신뢰도가 명시된 논문은 국내의 경우 52.2%에서, 국외의 경우 12.9%에서만 명시되어 있었고, 동일 도구에 대해 타당도가 명시된 논문은 국내의 경우 8.7%에서, 국외의 경우 25.8%에서 명시되어 있었다<Table 4>. 이는 국내연구는 성과를 주로 심리, 인지에 의존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측정도구가 질문지 등의

형태이었기 때문이고 국외논문은 주로 생리, 신체적 변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중재효과에 대한 보고와 중재 후 집단간 차이검증 결과를 조사했을 때, 대조군이 있는 논문의 경우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결과를 보고한 논문은 국내의 경우 70.2%, 국외의 경우 91.9%이었으며<Table 4>, 그중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중재효과 차이를 검증하여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온 논문은 국내 논문의 경우 결과가 보고된 83편 중 72편(86.7%), 국외 논문의 경우 결과가 보고된 38편 중 20편(52.6%)이었다. 이러한 차이 역시 국내논문에서는 중재의 효과를 흔히 주관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심리, 인지정도의 변화로 측정된 반면 국외논문은 단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일 만큼 변화할 수 없는 생리, 신체적 변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논 의

현재 보완대체요법이 사회적, 보건의료 정책적, 제도적으로 당면한 문제점은 다양한 보완대체요법들의 학문분야가 불분명하여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선 어떤 준비교육이 필요하며, 누가 교육을 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학제간, 전문가간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CAM은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전문가를 위한 교육과 연구, 진료와 제도가 병행하여 조절되면서 단계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Chun, 2004). 따라서 간호학문 분야에서도 보완대체요법의 근거중심 지식체 개발을 통해 간호의 영역을 확대시키며 기존의 의료서비스와 보완대체요법과의 통합의료서비스를 정착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보완대체요법에 관련된 실험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국외에서는 조사연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국내연구가 이미 많은 서술연구가 축적되어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실험연구를 실시하여

<Table 5> Characteristics of the outcome variables in experimental research

Outcome variables	Korea (n=202)				International (n=99)			
	N	Application rate (%)	Hypothesis accept	Effectiveness rate(%)	N	Application rate (%)	Hypothesis accept	Effectiveness rate(%)
Disease status	76	37.6	70	92.1	32	32.3	20	62.5
Psychological	74	36.6	61	82.4	30	30.3	20	66.7
Cognitive	65	32.2	55	84.6	12	12.1	8	66.7
Physical	60	29.7	53	88.3	39	39.4	21	53.9
Physiological	59	29.2	49	83.1	49	49.5	30	61.2
Pain	32	15.8	26	81.3	31	34.4	24	77.4
Behavioral	28	13.9	27	96.4	10	10.1	9	90.0
Quality of life	11	5.5	11	100.0	17	17.2	12	70.6

*Analyzed only if applicable

이 분야의 국제 선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국외에서는 아직도 CAM에 대한 탐색과 인식 전환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결론은 좀 더 보완대체연구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국내 CAM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간호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경향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CAM의 전 세계적인 이용 증가에 대해선 많은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으나(Menniti-Ippolito, Gargiulo, Bologna, Forcella, & Raschetti, 2002; Ni, Simile, & Hardy, 2002), Raschetti 등(2005)이 20209편의 CAM 논문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중 59%는 연구 논문이 아니었고 임상연구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연구에 사용된 CAM 유형을 비교했을 때 국내에서는 심신요법, 수기요법, 에너지요법 순으로 많았지만, 국외는 에너지요법, 심신요법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술연구에서는 국내외 모두에서 생물학적 요법을 가장 많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문유형에 따라 CAM에 대한 관심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보완대체요법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실험논문에서도 생물학적 연구가 병행되어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전문가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각 전문가 집단이 시술할 수 있는 보완대체요법의 범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Raschetti 등(2005)의 논문분석 연구에서는 CAM논문의 1/3은 침, 동종요법, 수기요법, 식물요법에 관한 것이었고 이들 논문은 대부분 영향력(Impact Factor)이 낮은 학술지에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ang과 Park(2003)이 국내외 조사연구에 나타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정도를 비교했을 때 국내의 경우 간호사가 의사에 비해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국외의 경우 의사가 간호사에 비해 좀 더 관심이 많고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료진에게는 보완대체요법의 사용에 대해 상의나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주위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환자와 일반인이 CAM에 대한 호응도, 사용정도를 감안하고 또 한편 의료계에서도 이를 정통의학체제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의료인들이 보완대체요법 사용에 대해 환자와 상담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기 위해서는 CAM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통해 앞으로 소비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 증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Vincent와 Farnham(1996)도 환자들이 CAM을 선택하는 이유는 정통의학의 부작용에 대한 염려, 환자-의료진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하였다.

실험연구에서 중재효과를 측정하는데 사용한 결과변수로 국

내논문의 경우 질병상태변화, 심리적 기능, 인지적 기능을, 국외논문의 경우 생리적 기능, 신체적 기능, 질병상태변화, 통증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논문의 경우 객관적인 성과를 주로 측정하는 국외논문에 비해 치료자와 환자간의 친밀감, 돌봄, 연민, 감정이입 등 돌봄 과정에 초점을 맞춘 성과를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총체성(wholeness)을 중요시하는 CAM의 특성을 좀더 반영하고 있었다.

보완대체요법 논문의 질적 측면을 Jadud 등(1996)의 기준으로 평가한 점수가 국내논문은 최대 5점 척도에서 평균 1.0점으로 나타나 방법론적 측면에서 실험설계, 무작위화, 표본크기, 이중차단, 무작위화 방법의 적절성 등과 관련하여 순수 실험논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엄밀한 연구방법에 의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연구방법의 향상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Klaus, Wayne, Dieter와 Stefan(2001)은 CAM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그 효과성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현존하는 증거를 요약하기 위한 논문의 체계적 검토(systematic review)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논문의 방법론적 질을 평가함은 검토과정에서 주요 부분이라고 하였다. Pittler, Abbot, Harkness와 Ernst(2000)가 351개 임상통계실험(CCT)연구를 분석했을 때 방법론적 질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본의 대표성에서 국내논문에 참여한 연구대상자 수가 국외논문에 비해 1/2수준으로 적었고 탈락율에 대한 보고나 표본크기의 검정력 분석 언급도 국외논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국내실험연구의 내적타당도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재방법의 서술에서는 프로토콜이나 절차 등에 대한 명시 정도가 국외논문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논문에서의 중재방법은 타당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구성과 확인을 위한 결과변수의 측정에서는 도구의 신뢰도 명시정도는 국내논문이 국외논문에 비해 현저히 높았으나 타당도는 국내논문이 국외논문에 비해 낮았다. 즉, 국내연구는 통계분석이 용이한 신뢰도를 산출하여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타당성 있는 측정도구를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해 CAM의 효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중재 효과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간 차이검증에서 유의성이 검증된(p<.05) 정도는 국내논문(86.7%)이 국외논문(52.6%)에 비해 높게 보고되었고, 결과변수에 대한 효과 보고율 역시 국내논문이 국외논문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이는 앞서 연구의 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논문의 연구결과는 실험연구의 방법이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진 자료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앞서 Pittler 등(2000)의 연구에서는 351개 통계된 실험논문중 6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이들 논문의 방법론적 질 점수는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CAM을 주도하는 학문분야 뿐만 아니라 학문 영역간

의 협동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의 학문분야를 분석하려 하였으나 출판된 연구보고서로서는 어려움이 있었다.

국외에서는 이미 엄격한 임상연구를 통해 축적된 근거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보완대체요법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교육과 임상실무에서의 CAM에 대한 근거중심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순수실험설계 연구 논문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국내 논문의 경우 연구 방법론적으로 질적 측면을 강화하고 중재효과를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결과 측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언급하도록 논문평가체계를 홍보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Tang, Zhan과 Ernst(1999)은 잠재력이 있는 효과적인 치료는 우선적으로 평가하여 최선의 증거는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요약, 전파하여 의사결정의 기반이 되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CAM관련 연구결과를 근거중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순수실험설계연구와 메타분석 연구를 진행하여 증거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학문분야에서 발표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국내외 연구논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국내외 연구동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완대체요법의 학문적 특성을 확인하고 적합한 방법론적 접근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국내외 보건의료계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중 NCCAM에서 분류한 5개 영역의 보완대체요법을 검색어로 하여 국내논문은 KoreaMed, Riss4U, RICHIS를, 국외논문은 PubMed를 검색하였다. 국내 242편과 국외 346편의 총 588편의 초록을 선정한 후, 2명의 검토자가 요약 기록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중 에너지요법, 수기요법, 심신요법으로 분류되는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실험논문을 국내 161편, 국외 62편을 자료로 하여 연구의 질, 표본의 대표성, 중재방법의 타당성, 연구성과를 세부기록지 양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국내 CAM관련 연구는 실험연구가 주류를 이룬데 비해 국외에서는 서술연구가 많았고, 국내에서는 의학과 간호학이 보완대체요법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외에서는 간호학 보다는 의학과 보완대체요법 관련 분야의 연구가 많았다. 조사연구에서는 사용실태조사가 주된 흐름으로 국내외의 모두 생물학적 요법(특히 비타민, 미네랄류)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실험연구에 중재로 적용된 보완대체요법은 국내에서는 심신요법과 수기요법이, 국외에서는 에너지요법과 심신요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국외논문은 순수실험설계 논문만 선정하여 국내와 비교할 수는 없었으나 실험연구설계는 국내에서는 주로 유사실험연구를 발표하였고 원시실험설계도 많았다. 무작위화를 시도한 논문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

CAM을 적용하여 중재를 한 대상자는 국내, 국외 모두 건강인보다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고 대상자 수는 실험군, 대조군 모두 국외논문이 더 많았으며, 표본 크기의 검정력을 언급한 논문은 국외가 국내에 비해 높아 전반적으로 국내 실험논문의 결과를 근거중심실무의 증거로 제시하기에는 연구방법의 질적 측면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재프로토콜, 중재절차, 중재자 자격 등은 비교적 잘 기술하고 있었다.

보완대체요법의 성과는 국내연구에서는 질병상태변화, 심리적 기능, 인지적 기능 순이었으며 국외의 경우 생리적 변화, 신체적 기능, 질병상태변화, 통증 순으로 나타나 국외논문이 좀 더 정통의학적, 생행동적 접근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국내외의 보완대체요법 관련 연구들은 국외연구보다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인식과 과학적 근거 제시를 위한 연구방법에 약점이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간호학 연구방법의 문제점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내 실험논문의 경우 결과의 내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한 방법론적 약점을 가지고 있어 과학적인 증거로 제시하기에는 많은 제한점과 논란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을 제언한다.

- 국내논문의 경우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축약 및 손실이 있음을 감안하여 추후에는 학위논문의 경우 청구논문을 직접 수집하여 논문의 질을 분석, 비교해 볼 것을 제언한다.
- 보완대체연구의 우선순위 결정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특히 간호에서 보다 간호중재의 특성에 가깝고 연구성과가 지지된 방법부터 집중적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같은 연구의 축적으로 간호의 처방이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 CAM의 효과 확인을 위한 과학적 근거 제시가 우선되는 연구방법으로 엄격하게 강화된 순수실험설계(RCT)연구를 제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 표집 시 잘 정의된, 임상적으로 동질한 모집단에서 CAM의 효과성, 잠재적 작용기전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충분한 표본크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무작위화를 적용하고 차단을 이용하며 신뢰성이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비교분석을 위해 대조군을 가진 연구를 설계하고 효과의 대비가 확실되는 서로 다른 중재를 비교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CAM 요법들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는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부작용의 가능성을 사정하고 수량화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 현재까지 보고된 바로는 CAM의 효과는 신체, 정신, 사회, 영적 영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생행동적 연구접근 등 다학제간의 공동연구를 계속 추진하여 심신 학문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되기를 제언한다.

References

- Chun, S. I. (2004).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Seoul : Gyechuk Publishing Company.
- Eisenberg, D. M., Davis, R. B., & Ettner, S. L. (1998). Trends in alternative medicine use in the United States, 1990-1997. *JAMA*, *280*, 15-69.
- Jadud, A. R., Moor, R. A., Carroll, D., Jenkinson, C. J., Reynolds, D. J., Gavaghan, D. J., & McQuay H. J. (1996). Assessing the quality of reports of randomized clinical trials : is blinding necessary?. *Controlled Clin Trials*, *17*, 1-12.
- Jang, E. H., & Park, K. S. (2003). A comparative study of nurses' and physicians' attitudes about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J Korean Acad Adult Nurs*, *15*(3), 402-410.
- Kim, M. H.(2003). *Us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and its related factors in cancer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Deagu.
- Klaus, L. Wayne, B. J., Dieter, M., & Stefan, W. (2001). The methodological quality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of homeopathy, herbal medicines and acupuncture. *Int J Epidemiol*, *30*, 526-531.
- Korean Medical Associatio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vidence level for complementary therapy-Summary (2005). Seoul, Korean Medical Association.
- Lee, E. I., Shin, Y. C., Lee, J. Y., Kim, S. D., Kim, H. J., & Cho, M. S. (2002). Us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 cancer patients at 7 general hospitals in Seoul. *J Korean Public Health Assoc*, *28*(3), 225-238.
- Menniti-Ippolito, F., Gargiulo, L., Bologna, E., Forcella, E., & Raschetti, R. (2002). Use of unconventional medicine in Italy : A nation wide survey. *Eur J Clin Pharmacol*, *58*, 61-64.
- NCCAM (National Center of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What is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Retrieved November 1, 2005, from <http://nccam.nih.gov/health/whatiscam/>
- Ni, H., Simile, C., & Hardy, A. M. (2002). Utilization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by United States adults. *Med Care*, *40*, 353-358.
- Pitter, M. H., Abbot, N. C., Harkness, E. F., & Ernst, E. (2000). Location bias in controlled clinical trials of complementary/alternative therapies. *J Clin Epidemiol*, *53*, 485-489.
- Raschetti, R., Menniti-Ippolito, F., Forcella, E., & Bianchi, C. (2005).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 the scientific literature. *J Altern Complement Med*, *11*(1), 209-212.
- Seol, K. L., Choi, S. Y., & Jong, I. L. (2002). A study on the use, understanding and satisfaction with alternative therapy for hospitalized cancer patients. *J Korean Public Health Assoc*, *28*(2), 198-211.
- Son, H. M. (2002). Nurses' attitudes towar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J Korean Acad Adult Nurs*, *14*(1), 62-72.
- Tang, J. L., Zhan, S. Y., & Ernst, E. (1999). Review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BMJ*, *319*, 160-161.
- Vincent, C., & Furnham, A. (1996). Why do patients turn to complementary medicine?. *Br J Clin Psychol*, *35*, 49-61.
- Yang, N. Y., & Shin, K. R. (2003).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 about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CAT) in nursing of Korea. *J Korean Acad Adult Nurs*, *15*(6), 226-235.

Research Trend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Oh, Kasil¹⁾ · Kim, Keum Soon²⁾ · Kwon, So-Hi³⁾ · Park, Jee Won⁴⁾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2)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3) 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BC-PCM., 4)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describe the research trend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CAM) in Korea and internationally. **Method:** A Systematic review of CAM related literature published from 2000 to 2005 was done. A comprehensive search by using 34 CAM modalities as search terms to identify all articles dealing with CAM was undertaken from 4 databases: PubMed, RICHIS, KoreaMed, and Riss4U. A Total of 588 abstracts and 223 original articles were reviewed by two independent reviewers using systematic analysis guidelines. Data

regarding the types of study design,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researchers, and classification of CAM modalities was recorded. The outcome measures of CAM were identified. **Results:** CAM research has been rapidly increasing worldwide in the last decade. In Korea, nursing(53.5%) followed by medicine(42.7%) occupied the majority of CAM research in comparison to medicine(42.9%) and disciplines in CAM(25.0%), like homeopathy, internationally. Prevailing research designs in Korea were experimental and quasi-experimental, however, randomized clinical trials were found. Internationally, survey research was dominant, with the exception of randomized clinical trials that were mostly an experimental design.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a robust research design in CAM research is needed to accumulate strong scientific evidence and to adopt nursing interventions from CAM modalities.

Key words :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Research trend, Research methodology

* Funded by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Jee Won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San 5 Wonchun-dong Yeongtong-gu, Suwon 443-749, Korea
Tel: 82-031-219-5322 Fax: 82-031-219-5094 E-mail: pjwon@ajou.ac.kr